추석 여론전 키워드 與 "경제" vs 野 "세월호"

추석을 맞아 지역에 내려가는 의원들을 통해 세

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다발' 홍보에 주력한

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메시지와

함께 당이 추진하는 민생·안전법안을 소개하는 정

책홍보물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與, 세월호·민생법안 분리 … 경제회복 홍보물 배포野, "최우선 민생법은 세월호법" 전국 동시다발 홍보

추석 연휴를 앞둔 여야는 4일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에 골몰했다.

세월호정국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추석 민심을 어떻게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향후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정기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쥘 수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며 '경제'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노동계, 재계, 서민임대주택 등을 찾아 경제활성화와 복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야당과의 차별화 행보를 시도했다.

김 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안 좋아 잘못하면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 운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추석 때 지역에 내 려가면 국회 입법이 막혀 있으니 큰일이라고 국민 께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와 함께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 전국 당협에 배포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발전, 복지법안 등을 처리해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며칠 후면 보름 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해야 할 추석 명절임에도 서 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차갑 다"면서 "지금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 라 국회다. 추석 전에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라도 끝 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에만 매달려 국회를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불리한 여론을 정면돌파해보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중앙당에서의 집중 대응보다는 의원들 각자가 귀향활동을 통해 시민 을 직접 만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해명작업들 을 광범위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월호 특 별법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한다는 민심이 형성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와 함께 결국 정국 파행의 책임이 국정 운영을 주도해야 할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추석 당일인 8일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합동 차례를 예정하고 있는 만 큼 그 자리에 함께해 가족들을 위로하는 방안도 검 토 중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중인 의원들의 릴 레이 단식 농성도 연휴 내내 이어가기로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리원전 시찰 나선 박영선

최근 침수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2호기 복구작업 현장시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본부에서 현장시찰을 마친 뒤 1호기 중앙제어실에서 원전 안전 대책 등에 대해 발 언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윤장현 시장 방문 자동차 산업 적극 지원에 감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이례적으로 윤장현 광주시장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시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기아자동차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광주시를 찾은 노조 간부는 한국금속노조 기아차 광주지회 소속 이병천 수석부지회장과 범진 식 부지회장, 박상모 정책고용실장 등으로 노조가 공공기관을 항의방문이 아닌 감사의 방문을 한 것 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병천 수석부지회장은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광주시의 자동차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정치 투쟁 방향 '추석 민심'이 가른다

강경파 "특별법-의사일정 연계 장외투쟁을" 중도·온건파 "국민 여론따라 원내 복귀해야"

팽목항~서울 도보행진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의 투쟁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민심의 향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다수 의원들은 특별법과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연계, 장외투쟁에 비중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별법 타결 전에 의사일정 정상화나 다른법안 처리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돼

^{놨다.} - 노영민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정치란 자기 양심 에 비춰 옳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판단하면 당장 다수 국민이 지지하지 않아도 진정성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강경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나타냈다.

반면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은 국민 여론에 따라 원내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4일 교통방송에 출연해 "추석을 지내고 난 뒤 곧바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를 봐야 한다"며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총선, 대선에서 승 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려면 국민의 눈밖에 나서 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도성향 의원 중심으로 추석 연휴 직후에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원 의원은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평화방송에 출연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야당만이라도 세월호 가족 등 어려운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강온파 목소리에 모두 귀를 열어두고 추석연휴 이후 투쟁 방식에 고심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여권 압박 카드로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릴레 이 도보행진을 펼치고 광화문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동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석 민심이 장외 투쟁에 비판적으로 형성되고 의사일정 참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원내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송광호의원 체포안 부결 후폭풍 여 "국민께 죄송" 사과 야 "여당 책임론" 공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여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후폭풍 진화에 나선 반면 야당은 여당에 책임론 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송 의원 체포동의안 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미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도 없다"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유구무언"이라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자세를 한껏 낮추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에만 책임을 묻는 데 대한 억울 함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장에 야당 재석 의원이 114명이었는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73명이었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 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과잉수사의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여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투표 결과를 두고 의 원들의 특권 지키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자칫 야당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선제적으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렇 게까지 할 줄 몰랐다.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 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면서 "야당에서도 일부 무효표와 기권표가 있었지만, 본질은 여당의 대국민 사기극이다"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야당의 '이탈표'가 적 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성론을 제기 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국민이 따가운 시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저희도 반성을 한다"며 "어 떻게 됐든 죄송한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연합사단' 내년초 창설

한국과 미국은 전시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연합사단'을 내년 초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4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전술적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에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을 모체로 편성되는 연합사단은 참모 요원 편성과 작전계획수립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임무수행체계가 구축된다. 연합사단은 의정부에서 편성되지만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자동으로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사단본부가 이전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